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우리나라는 환율보고서 기준에 따라 관찰대상국 분류 유지 -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환율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미국 재무부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June-2025-FX-Report.pdf>)

미국 재무부는 6.5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4.1월~'24.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 ① 무역흑자: 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②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③ 외환시장 개입: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달러 순매수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하였다.

< 환율보고서상 요건 및 한국 평가 결과 >

美 교역촉진법상 평가기준(세부기준)	한국 평가	
① 현저한 對美 무역흑자(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	55(십억불)	○
②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5.3%	○
③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8개월 이상 + GDP 2% 이상 달러 순매수)	△0.6%	X

한편, 미국 재무부는 다음번 환율보고서('25년 하반기)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임을 함께 발표하였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 자본유출입 조치(Capital Flow Measures),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Pension Funds or Sovereign Wealth Funds)와 같은 정부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 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책임자	과 장 정여진 (044-215-473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cjeye86@korea.kr)

